

GS건설이 자체점검 중인 공동주택 등 83개소, 국토부가 걱정 여부 확인 점검에 나선다

- 5월 15일부터 우기대비 안전점검(5.15~7.7.)과 병행하여 실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GS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등 83곳에 대해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GS건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*의 걱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.

* GS건설 보도자료(23.05.09), <GS건설, 아파트 전 현장(83개소) 구조 정밀안전점검 나선다.>

- 이번 점검은 5월 10일 발표한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관계전문가 합동으로 전반적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.

- 국토부 관계자는 “GS건설이 시공하는 전국의 아파트 등 건축현장에 대해 시공사의 자체점검과 국토부의 확인점검을 통해 주택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,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실벌점,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이윤우 (044-201-3573)
		담당자	사무관	안일찬 (044-201-3552) 장연환 (044-201-3562)